2019 Life-Culture

# 2019 생활문화 동호회

생활문화 동호회로 행복한 성남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 2019 생활문화 동호회

생활문화 동호회로 행복한 성남

2019

# 생활문화 동호회

생활문화 동호회로 행복한 성남

# Contents


## I 동호회 사람들

10 개인 인터뷰 사랑방문화클럽 곽윤부 운영위원장
성남뮤젤밴드 박공식 부위원장
하모니 무용단 김순옥 대표
도화지애 조현숙 작가

34 단체 인터뷰 우쿨렐레 라온제나
포엠송

46 기관 인터뷰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문화국장
성남문화재단 송승태 부장

## II 생활문화 동호회 한마당

56 시민과 거리에서
58 멋과 흥이 넘치는 한마당
60 기억하자 광복! 잊지말자 역사!
6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68 마리오의 즐거운 음악여행
72 성남 사람사랑 캐리커쳐
76 생활예술이 꽃피는 우리동네 골목시장
80 따로 또 같이 불자
84 아빠는 열애중
85 희희낙락
86 2019 여름 향기
90 시민과 함께 부르는 힐링노래 한마당
92 여름이 노래하고 가을이 춤추래
94 2019 록케이션
96 우리동네 음악대장
98 문화가 꽃피는 성남

## III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

104 소소콘서트
106 생활문화 동호회 어울림 한마당

## IV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평가

112 2019 활동 보고회

## V 생활문화 동호회 리스트

118 2019 참여 동호회

## VI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북 제작 분투기

140 프로젝트 북을 마치며

# I 동호회 사람들

**개인 인터뷰**

사랑방문화클럽 곽윤부 운영위원장
성남뮤젤밴드 박공식 부위원장
하모니 무용단 김순옥 대표
도화지애 조현숙 작가

**단체 인터뷰**

우쿨렐레 라온제나
포엠송

**생활문화동호회를 가꾸는 사람들**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문화국장
성남문화재단 송승태 부장

# 사랑방문화클럽 곽윤부 운영위원장 인터뷰

## "2019년은 변화의 계기가 된 해 2020년은 사랑방문화클럽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첫 해가 될 거에요"

글/사진 이영미

성남문화재단에는 성남시민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예술동호인의 네트워크와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브랜드가 있다. 2007년 5월 18일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이 그 주인공이다.
창단 이후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 활동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를 기치로, 매년 성남 곳곳에서 찾아가는 공연과 전시는 물론, 동호인들의 축제인 〈사랑방클럽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하지만 2020년을 맞아 사랑방문화클럽은 운영상에서 조금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변화일까? 12월 초순, 서현문화의집에서 2019년 사랑방문화클럽의 곽윤부 운영위원장을 만나봤다.

Q.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인터뷰할 분이 '위원장'님이란 걸 알고, 사랑방문화클럽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어떠신가요?
A. 저는 창단멤버였어요. 2007년도에 네트워크 만들때 2년간 운영위원으로 일했고, 2회 부위원장이기도 했구요.
이후 축제운영지원팀장으로 4년간 일하다가 한동안 쉬고, 4년 전 복귀해서 다시 운영위원, 기획팀장 그리고 올해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에 자리한 문화예술동호인들이 모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활동하시는 동호회가 있으신가요?
A. 대학교에 입학한 20살부터 풍물을 시작했습니다.
풍물이 너무 좋아서 군대 졸업하고 한동안 풍물로 먹고 살지, 취미로만 남길지 고민을 했을 정도인데요, 전 취미로 결정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풍물을 직장 다니면서도 멈춘 적이 없는데요, 95년도에는 직장인 중심의 〈풍물패 우리마당〉을 조직해 지금까지 23년째 수진역 근처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제 삶의 중심은 이 풍물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가끔 저를 만날 때마다 "요즘 뭐 하니?"라고 묻곤 했는데요, 풍물패 활동을 위해서 직업도 1~2년 단위로 바꿨기 때문이죠. 지금도 풍물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창단멤버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간의 몇 년을 빼곤 사랑방문화클럽과 늘 함께 하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어느 한 가지 취미생활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구요. 그래서 평소에 시나 정부에서 시민들의 취미생활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성남문화재단이 민간의 취미생활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해 사랑방문화클럽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이런 민간의 취미생활지원이 정부의 방향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본취지가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구요.

Q. 사랑방문화클럽 활동하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클럽을 기회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풍물이라, 풍물하는 사람들만 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면서 저와 다른 장르의 취미활동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덕분에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을 지금도 일년에 1~2번씩 이사하신 곳으로 찾아가거나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Q. 사랑방문화클럽 동아리들은 몇 개나 되나요?

A. 2019년 현재 240여개 팀이 있습니다. 악기, 미술, 노래, 여행클럽, 독서동아리, 문학클럽, 사진클럽, 클래식음악동호회, 영화감상동호회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Q. 벌써 12월인데요, 사랑방문화클럽의 2019년 활동을 소개해주시겠어요?

A.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한 팀당 3개 동아리 이상 참여한 16개 팀을 지원해 '생활문화동호회 한마당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팀장이 사랑방클럽회원인 팀이 12팀, 사랑방클럽 비회원이 4팀인데요, 전시회의 경우는 한 팀에 20개 동호회가 함께 하기도 합니다. 공연장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탑, 남한산성 놀이마당, 율동공원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탄천변 등인데요, 공간이 있으면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사업입니다. 공간대여사업인데요, 공연팀에게는 큐브사랑방과 앙상블사랑방을, 미술 등은 큐브전시실을 동호회 연습실로 빌려줍니다. 오전 오후를 4타임으로 해서 하루에 4개 동호회가 1년 동안 공간을 사용하는데요, 올해도 50개 팀이 사용 중입니다. 이 중에는 사랑방클럽회원이 아닌 동호회들도 함께 하구 있구요. 내년 사용은 오늘까지 접수를 받았고, 곧 있을 심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인데요, 올해는 〈생활문화동호회축제〉로 이름을 바꿔 사랑방클럽네트워크와 성남시강사협의회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일주일 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갑자기 취소되면서, 공연을 준비했던 팀들이 모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Q. 올해 활동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올해는 아쉬움이 큽니다. 원래 '사랑방문화클럽'은 동호회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정책사업명'이기도 하고, 또 소속되어 활동하는 동호회의 네트워크명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사랑방문화클럽'이란 정책명이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3년 동안 불러온 이름이 바뀐 건데요, 다른 지자체 분들 중엔 성남의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브랜드처럼 고정된 좋은 이름을 왜 바꿨냐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시의회 결정사항이라 바꿔야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클럽가입 동호회와 비가입 문화예술동호회가 함께 했던 〈사랑방문화클럽축제〉도 〈생활문화동호회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랑방문화클럽'이란 이름을 동호회네트워크 이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이름이 변경된 걸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성남의 브랜드였는데, 시의회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이름을 바꾸라고 한 건가요?

A.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은 개별 동호회 지원사업이 아니라, 동호회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해도 공연비나 전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연이나 전시를 하면 재료비나 식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좋아서 하는 거죠. 다만 개별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연요청이 들어오면 얼마라도 차비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들의 월례회의가 있는데요, 식사비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고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기획팀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알고 또 협의를 했는데요, 아쉬움이 큽니다.

Q. 정책사업명도 바뀌고, 더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어려웠던 점엔 어떤 게 있었나요?

A.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은 성남문화재단이 시민들이 생활문화의 주인이 되고 또 주체가 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그래서 그동안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은 정책파트너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며 함께 해 왔는데요, 올해는 정책명도 바뀌고, 3월에는 성남문화재단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책사업을 담당하던 분들이 이동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협의했던 축제 일정이나 기획도 성남문화재단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또 정책파트너로 뮤즈홀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월례회의를 올해는 뮤즈홀에서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유료로 대여하는 공간이라 올해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서현문화의집에서 월례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은 필요가 없던 자체사업에 대한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Q. 그럼, 2020년 사랑방문화클럽에 뭔가 변하게 되는 건가요?

A. 성남문화재단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지난 13년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나간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도 그대로 진행하고, 또 성남문화재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건데요, 다만 그동안 필요가 없어 일부러 해오지 않았던 자체 행사에 대한 필요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있는 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건데요, 먼저, 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회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호회당 5~6만원 정도 연회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자율적인 연회비인데요, 이 회비부분을 공론화하고 토론해 회비를 낸 팀들을 위한 공모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사업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해 정관을 개정하는 안이 있는데요, 올해는 운영위원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운영위원은 동호회 장르별 대표로 한 운영위원당 최소 10개 이상의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위원은 1년 임기에 원하면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올해 회의에선 임기를 1년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한달에 한 번 있는 월례회의에 참석하다보면 처음 1년은 그냥 갑니다. 2년째에는 일에 대한 감을 잡게 되는데요, 그렇게 좀 알면 끝내야 됩니다. 경험축적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최대 3년으로 운영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 연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월례회의 참석률이 최소 50% 이상인 분들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비를 내면서 회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에 대한 마음과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Q.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성남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사랑방문화클럽을 담당하는 생활문화지원부에 여러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갖고 고민하는 분이 적어 아쉽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에는 창단 때 재단과 함께 만든 '사랑방의 노래'가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사랑방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성남문화재단의 담당분들이 이런 취지를 함께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랑방문화클럽은 민과 관의 협치인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정책파트너로서 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이 대화와 협의의 상대가 되면 좋겠고, 사랑방문화클럽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추는 일을 응원하고 관심가져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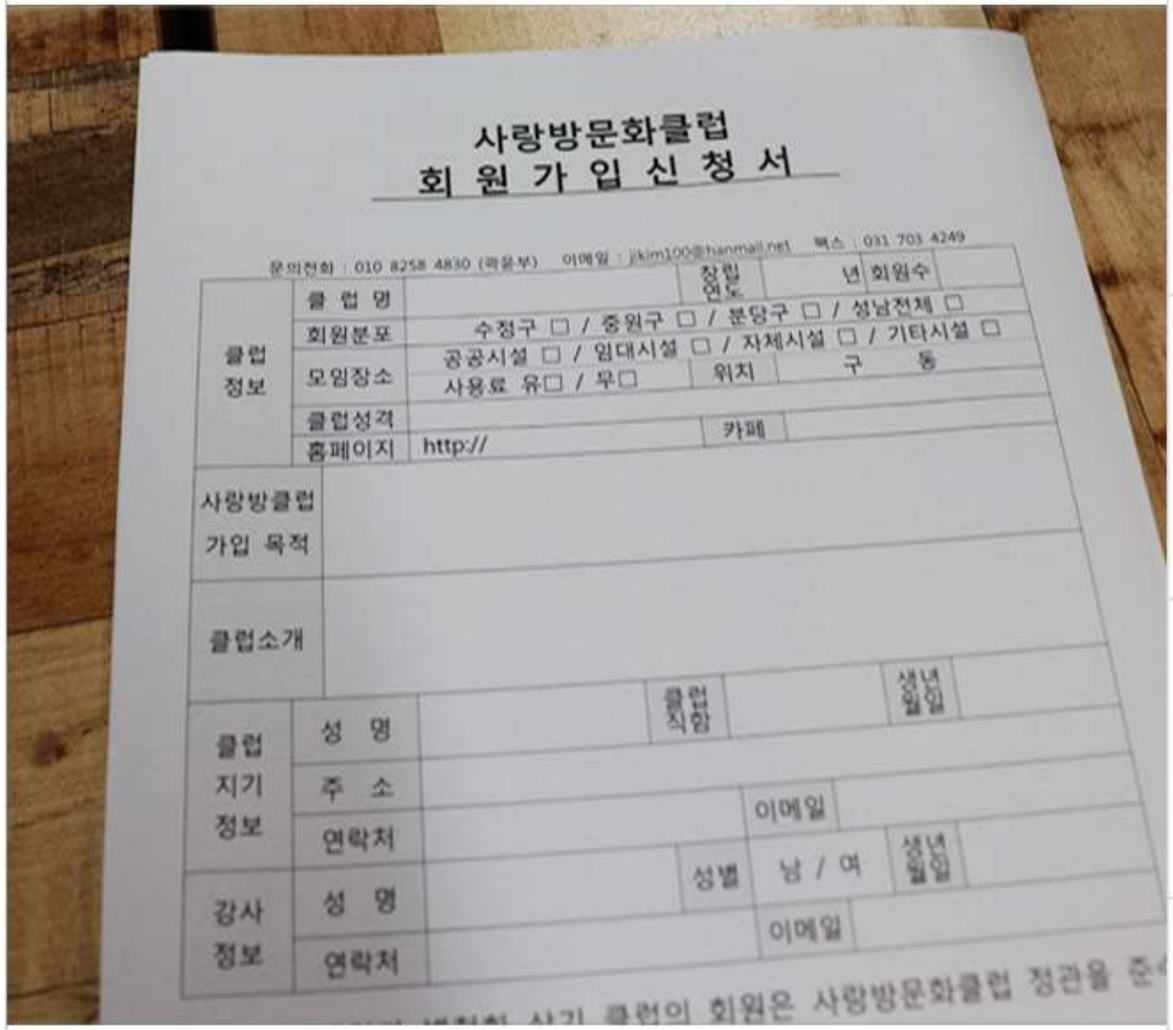
A. '팀'이름으로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면 됩니다.
3명이상 동호회라면 가입이 가능하구요. 정관이나 약관은 필요없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면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과 클럽 관련된 정책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연습 공간 대여 등에 대한 사전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양식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시거나, 재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사랑방클럽위원이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재단이나 위원분들 모두 제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곽윤부
성남서현문화의집 관장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010-8258-4830
가입관련 이메일 jikim100@hanmail.net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오늘 인터뷰가 사랑방문화클럽의 변화의 시기를
담아내는 글이란 걸 다시 생각해본다.
크고 작은 많은 동호회들이 있지만,
사랑방문화클럽처럼 관과의 협치에서 탄생하고
또 성남시의 100년 후를 꿈꾸며 노래하는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는 이곳뿐이다.
그래서 정책변화로 인해 마주하게 된 자생의 필요성과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맺길 응원하 게 된다.



사랑방문화클럽
회 원 가 입 신 청 서

문의전화 : 010 8258 4830 (곽윤부) 이메일 : jikim100@hanmail.net 팩스 : 031 703 4249

| | | | | | |
|---|---|---|---|---|---|
| 클럽 정보 | 클 럽 명 | | 창립 연도 | 년 | 회원수 |
| | 회원분포 | 수정구 □ / 중원구 □ / 분당구 □ / 성남전체 □ | | | |
| | 모임장소 | 공공시설 □ / 임대시설 □ / 자체시설 □ / 기타시설 □<br>사용료 유□ / 무□ | 위치 | 구 동 | |
| | 클럽성격 | | | | |
| | 홈페이지 | http:// | 카페 | | |
| 사랑방클럽 가입 목적 | | | | | |
| 클럽소개 | | | | | |
| 클럽 지기 정보 | 성 명 | | 클럽 직함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 | 연락처 | | 이메일 | | |
| 강사 정보 | 성 명 | | 성별 | 남 / 여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이메일 | | |

# 성남뮤젤밴드 박공식 부위원장 인터뷰

## 동호회 사람들

글/사진 진미라



Q. 성남뮤젤밴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성남뮤젤밴드는 2011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결성한 단원은 군악대 출신이거나 취미로 악기를 즐기는 분들로 퇴직 전 생활전선에서 바쁘게 지내며 잠시 악기를 내려놓았던 분들이 퇴직 후 등산이나 낚시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박공식부위원장의 동아리를 형성해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제안에 함께 뭉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4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색소폰 12명, 밴드 6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Q. 성남뮤젤밴드의 뮤젤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활동으로 시작되었나요?

A. 뮤직 앤 엔젤을 줄인 말로 음악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했기에 봉사를 천사에 비유해 음악과 천사를 뜻하는 뮤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외계층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하게 되면서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해 성남시, 경기문화재단까지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넓혀갔습니다.

Q. 2019년 주요활동내용을 소개해주세요.

A. 올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으로 모란시장, 수진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수차례에 걸친 공연을 했으며 '시민과 거리에서', '시민과 문화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야탑광장과 남한산성일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피땀 어린 광복, 잊지 말자 역사!' 행사를 야탑역 야외광장에서 진행했는데 행사의 기획에서부터 공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더 의미있고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Q. 올 한해 활동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소감을 말해주세요

A. 늘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에 함께 하면서 마음가짐은 하나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최대한 즐기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나의 즐거운 마음, 우리의 즐거운 마음이 악기의 선율을 타고 연주를 듣는 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에 무대의 크기, 관객의 숫자에 관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어떠한 무대든 믿음을 갖고 함께 해주는 팀에 감사의 마음도 한가득입니다. 한번의 공연을 위해 10개가 넘는 장르의 15개 팀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늘 빠지지 않는 연습에 적극적으로 임해줌에 감사하고 댓가 없이도 함께 무대를 완성해줌에 미안한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Q. 기억되는 활동이나 행사가 있는지요?

A. 8.15 광복절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피땀 어린 광복, 잊지 말자 역사!' 행사가 아무래도 큰 무대였기도 하고 처음 기획부터 진행을 했기에 가장 기억이 됩니다. 그동안의 공연 패턴이나 공연할 곡의 선곡에서부터 임시정부수립 100 주년에 맞춰 곡을 선곡하고 연습을 하였기에 모든 팀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탄탄한 구성력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무대공연을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공연 당일인 광복절에 비가 많이 와서 애기치 않은 기상악화로 객석에 천막을 치고 음향기계를 살피고 지켜 안전사고 없이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 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더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됨을 새삼 느끼게 했고 장르별 팀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무심히 지나치고 관심 없어 보이는 시민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연주나 음악에 귀 기울이기 함께 공감하며 동참하는 속에서 애국심, 애국의식이 잠재되어있는 시민분들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Q. 공연을 하고 가장 뿌듯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A. 공연을 하는 어느 누구든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호응에 뿌듯함을 느끼지요. 노력한 만큼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이에 대한 관객들의 환성과 환호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Q. 좋았던 기억, 그렇지 않은 기억으로 애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A. 올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성남뮤젤밴드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활동한 행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네요. 다른 팀에 모범이 되는 팀으로 선정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소하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3년전부터 2~3천병씩 복지관, 재활원, 장애인협회 등에 분기별로 요거트 같은 유산균 음료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화한통을 받았는데 그동안의 기부봉사로 인한 것인지 성남시장 표창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쑥스러워하심...^^)
10월에 경기도문화재단 주관의 '시민과 문화여행'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무대공연 직전에 전기오류로 인해 공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객석을 가득 채운 200~300여명의 시민분들을 위해 1시간 남짓의 공연을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시간의 공백없이 진행하기 위해 선곡을 대중가요로 해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고 퀴즈를 풀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객석의 시민분들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Q. 성남뮤젤밴드를 이끌면서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에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A. 성남시에서는 문화활동의 장을 활짝 열어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어 늘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동호회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어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의 다양한 문화생들에게도 문턱을 낮추고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공연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곳에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바라보자면 문화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로 구성된 단체, 동아리 등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더 넓게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Q.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소개해주세요.

A. 굵직하게 진행되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경기도문화재단의 행사를 바탕으로 활동할 것이며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소외계층을 위로하는 공연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하모니 무용단 김순옥 대표

## 잠자는 열정을 깨워 꿈을 실현하다

글/사진 이미순

살짝 눈 내려 운치 있는 날~
성남아트센터 커피숍에서 만난 하모니무용단 김순옥 단장.
여리여리한 고운 몸짓, 손짓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녀의 열정에 반했다.

현재 성남문화의집, 수진1동 주민자치센터 , 구미동 주민자치센터, 야탑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김순옥 단장은 사랑방 문화클럽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9 생활예술문화동호회 한마당', '생활이 꽃피는 우리동네 골목시장'을 기획해 성남 수진1동 으뜸길 포토존에서 6월 29, 9월28일, 11월 2일 공연을 펼쳤다.
전문적으로 한국무용을 연구하고 싶어 2010년 대학원에 입학해 〈어르신들을 위한 춤 체조〉 라는 논문을 썼고 2012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올 해 손녀를 보았다. 내 아이 키울 때와 달리 손녀가 커가는 것을 보니 〈어린이를 위한 전통 춤 체조〉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슴 속에 적어 둔 계획서를 풀어 보인다.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지금은 열정적인 춤꾼으로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그녀가 궁금해졌다.

Q. 춤은 언제부터 배웠나요? 전공하셨어요?
A. 23년 전, 세 아이의 엄마로 문학도였던 제가 전공과는 전혀 다른 한국무용을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한국무용을 추고 싶었다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10년간 조교로 활동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정자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시작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Q. 하모니무용단은 언제 창단했나요?
A. 2009년 1월 창단 한 후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어느새 10년이 되었네요. 현재 15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성남문화원 3층 다목적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5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부터 지금까지 사랑방문화클럽 단골클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하모니무용단을 만들게 된 동기는요?
A. 수강생들이 발표회를 하고 난 후 무척 보람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재능기부 공연을 하면 매우 뜻 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함께 봉사 할 뜻을 가진 수강생들을 모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Q. 하모니무용단의 회원 가입 조건이 있나요?
A. 하모니무용단 회원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작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려면 작품을 배우고 익혀야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에 수업을 듣는 동아리 반 수강생들이 곧 하모니무용단입니다. 동아리 반이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없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작품 수업을 받는 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Q. 하모니무용단이라는 단체명은 어떻게 지었나요?
A. 제5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때 당시 문화재단 박지훈 차장님의 제안으로 클럽간 콜라보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MR을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모아진 클럽 한마당 팀이 한국무용·합창·모둠북·다문화베트남 팀·경기민요 팀이 〈최진사댁 셋째 딸〉로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연습한 결과 멋진 공연이 되었지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국악 쪽에는 어울림이라는 닉네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울림으로 단체명을 썼는데 5회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축제 이후부터 하모니무용단으로 개칭했습니다.

Q. 사랑방클럽 가입한지 10년 되었는데 가입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A. 해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컨셉으로 공연하면 좋을까? 하고 공연 기획도 생각하게 되고, 공연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못지않게 배움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어 단원들은 새로운 작품을 하나씩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예술 공연준비에도 열정을 쏟고 있기에 사랑방문화클럽은 하모니무용단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Q. 공연 의상과 소품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A. 단원 개개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맞는 의상이 정해지면 단원들과 함께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원단을 사와 맞추기에 의상비가 생각보다 저렴하게 듭니다.

Q. 골목상권 '생활예술문화동호회 한마당' 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요?
A. 수진1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에게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인 수진1동에는 중국인과 중국 동포 등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예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한국무용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인들도 관객이 될 수 있고 함께 소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행사지원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A. 성남시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음향시스템, 무대장비, 리플렛, 현수막 등을 지원 받고, 소소하게 드는 비용은 단원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품지도, 안무, 기획, 연출은 제가 하고 함께하는 생활동호회 역시 전적으로 재능기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공연 하지 않는 날은 무엇을 하고 지내나요?
A.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토요일은 동아리 반 즉 하모니무용단 수업 또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주일 내내 춤만 추고 있네요. (웃음) 일요일 하루는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외할머니가 되었답니다. 예쁜 외손주 보며 쌓인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활동에 대한 회고와 소감에 대해 물어보았다.

유난히도 바빴던 한해였다는 김순옥 단장은 사랑방클럽 무용장르 운영위원을 맡다보니 다른 장르의 팀과 공연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성남시평생학습원, 경기문화재단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생활동호회 지원사업 공모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되었다.
공연 할 기회가 많아 좋긴 한데 아쉽다면 작품 연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연 한 적도 있고, 공연 참여 단원이 부족한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그래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 선정 돼 치러진 3회차 공연에서는 음식체험과 생활예술공연이 함께하는 이색공연을 펼쳤다.
수진1동 으뜸길에서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2019년에 기획한 〈생활예술이 꽃피는 우리동네 골목시장〉 이 수정구편이라면 내년에는 중원구편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열악한 우리동네 골목시장을 찾아다니며 생활예술이 꽃피도록 힘쓰고 2020년도에는 예전과 달리 단원 모두 함께 출연하지 않고 장구춤 · 사랑무 · 산조춤 · 수건입춤 · 교방화선무 등 작품별로 공연하고, 하모니무용단 단원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항상 해오던 것처럼 다른 클럽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헌 활동은 꾸준히 전개하겠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숨어있는 끼와 열정을 깨워 하고 싶었던 한국무용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녀!!
하모니무용단 김순옥 단장!!
하늘에서는 그녀를 응원하는 하얀 눈이 내렸다.

"멋진 당신을 응원합니다"

# 조현숙 작가 인터뷰

## 그림으로 살아가는 괜찮은 인생

글/사진 이주영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성남은 타지역에 비해 동호인 클럽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이 모여 재능을 키우고,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호회 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해 예술 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멋지게 살고있는 조현숙 작가. 예술 활동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녀를 만났습니다.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진행하셨던 2019 생활문화동호회한마당 '여름향기' 전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2019 여름향기'는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총 27개 클럽과 191명이 참여한 큰 행사였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성남아트센터 808 갤러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그린나래(보타니컬아트)를 포함해서 8개의 신규클럽이 참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 서예, 민화, 캐리커쳐, 캘리그라피, 누드르로잉, 금속, 한지, 넵킨아트, 나무, 종이접기 등 참여하는 클럽별 성격과 특징을 잘 살려 함께 전시하는 모든 클럽들의 융합이 잘 이루어진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의 지원을 받는 생활문화예술사업으로 성남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만나서 사랑방문화클럽 전시부의 활동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인 후원과 지원 요청에 대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Q. 전시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A. 연합전시 '2019 여름향기' 총괄팀장을 맡아 4월부터 5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참가하는 27개 팀의 협업이 중요하고 함께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앞두고 3개월간에는 3회에 걸쳐서 전시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에 대해 업무 분담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클럽에 대한 비협조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한 분들이 계셨기에 큰 행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지 않았나생각듭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이 '여름향기'이기는 하지만, 홍보하고 초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께 알리지 못한 점이 아쉬워 홍보나 업무협력에 전문적인 지원방법이 필요했다고 생각듭니다.

Q. '여름향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A. 내년에도 개최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여러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신규클럽을 발굴하여 연합전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 동호회한마당 사업으로는 예산이나 기획, 진행 과정 등이 모두 역부족으로 큰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축제 행사로 이어서 가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회화, 공예(도자기, 한지, 금속, 나무 등), 캘리 등 세분화해서 전시기획을 하고 각각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홍보·진행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장르별 모임이 축제에 모이게 된다면 축제 전시에 더 많은 힘이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이신데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은 일은 없으셨나요?

A. 2015년부터 2019년(2017년 제외) 현재까지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때는 성남아트센터에서 전체 전시를 했는데 2015년부터 율동공원, 성남시청 로비 등에서 전시가 진행되어 분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작품 전시라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지 즉, 전시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 작가들과 관람객들도 점점 감소하고 클럽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함께 전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하고자 운영위원으로 적극 추진하고, 박봉덕 선생님(다사랑회)을 사랑방 운영부위원장으로 모셔 활동에 박차를 더욱 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년과 올해 연합전시 '여름향기'도 개최할 수 있었고, 4~5년 전부터 전시부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실제 구성비도 공연팀이 전시팀보다 많기도 하지만 공연팀의 활동이 보여지는 부분이 커서 전시부의 존재가 미약했습니다. 전시라는 특성으로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2015~2016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례를 만들어가면서 전시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Q. 좋그렇다면 사랑방문화클럽의 장점이나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대부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보완되어지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클럽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격려받으면서 각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화지애'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A. 2010년 말에 모임을 만들고, 2011년부터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원수는 처음 5명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1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현재는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도화지애'의 뜻과 결성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도화지애_圖畫智愛'는 한글과 한자의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을 좋아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성남문화원 서양화반에서 만난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모두 미술 비전공자들이었지만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작업을 지속하고자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해주는 강사 없이 하다보니 함께 그림을 배우러 다녀볼까도 생각하여 여기저기 찾아갔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각자가 그림을 그려왔던 방식과 스타일이 있어 고치기가 어렵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많이 보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렇게 좋아서 열심히 하다보니 실력이 점점 쌓이게 되었고, 2012년 우수클럽상 (사랑방문화클럽), 2013년 모범클럽상(사랑방문화클럽), 2017 우수동아리 수상(도촌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Q.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전시는 없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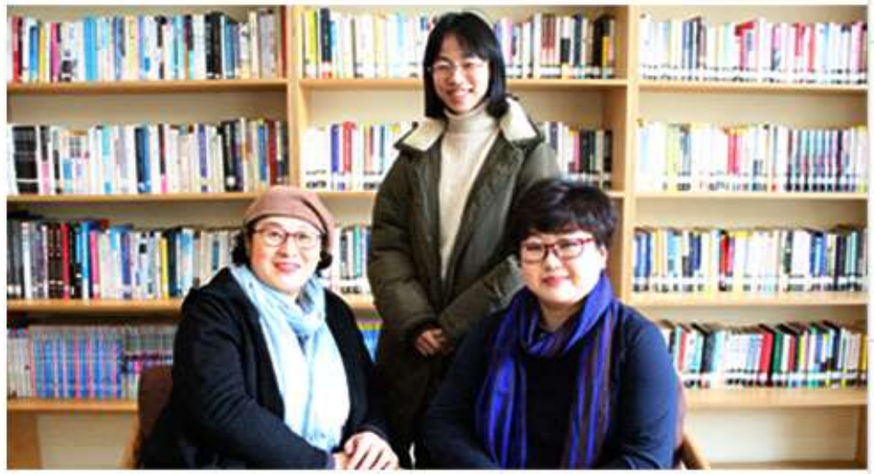
A. 내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선정되어 지원금으로 제7회 정기전을 하게 되었고, 제3회 전국생활문화동호회 축제전에도 선정되어 서울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전시하였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는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공감갤러리에서 제9회 도화지애 정기전을 갖습니다.

Q.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현재 미술치료학을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A. 저는 2005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미술치료학을 전공하고, 현재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 미술치료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사랑방문화클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하는 교육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수업으로 장애인들 대상 미술치료를 알게 되었어요. 미술로 치료 받는걸 느끼게 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치료에서는 나무를 많이 그립니다. 나무는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 그림을 보면 나무를 테마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기본도형으로 재미있게 표현하여 그렸습니다.

Q . 그림을 보니 정말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조현숙 작가(운영위원)에게 있어 '사랑방문화클럽' 그리고 '도화지애'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사랑방문화클럽'은 저에게 있어 도화지애가 발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 울타리입니다. '도화지애'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나입니다. 2020년은 도화지애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 조현숙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을 비롯해 인터뷰가 진행된 날 함께 참석하신 사랑방문화클럽 박봉덕 사랑방 운영부위원장(다사랑회), 다카코 신규클럽회원(그린나래_보타니컬아트)께 감사드립니다.*

# 라온제나

## 밝고 따뜻한 음색과 닮아있는 사람들

글/사진 이선영





스산한 바람에 떨고 있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녀리게 떨렸다가 때론 힘 있게 울림소리를 내는 우쿨렐레의 협주. 연주곡 〈커피룸바〉가 성남아트센터 사랑방문화클럽 연습실에서 흘러나왔다. 초겨울 분위기에 걸맞게 조금은 아련하고 쓸쓸한 느낌이 감도는 느낌의 곡. 그것을 표현하는 우쿨렐레의 선율도 한껏 우수에 젖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지만 확실히 차갑거나 예리한 느낌과는 다른 성격의 소리가 났다. 명쾌하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끝이 둥근 느낌이 나는 우쿨렐레의 음색은 확실히 '즐거움'이라는 느낌과 많이 닮아있었다. 그 즐거움을 7년이나 함께 공유하며 성장해온 우쿨렐레 동호회 '라온제나' 단원들을 만났다.

조미혜 대표를 비롯 총 9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라온제나는 모두 피아노를 전공하고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었다.
2012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인 라온제나. 라온이란 뜻은 '즐거운', 제나는 '나', '우리'라는 뜻으로 '즐거운 우리'라는 뜻을 가진 동호회다. "우쿨렐레 지도를 위해 지도자 과정으로 모인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성남문화재단 활동을 거점으로 서울,용인 등 지역초청 행사나 협연 등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했다면 앞으로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봉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혜 단장이 먼저 팀을 소개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보통사람들이 '작은 기타' 정도로 알고 있는 조금은 생소한 우쿨렐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악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우쿨렐레는 현이 4개인 하와이 악기입니다. 19세기 말에 포르투갈 사람이 '브라기니아'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하와이 원주민이 보고 만들어진 악기죠. 우쿨렐레는 하와이 말인데 우쿨은 '벼룩', 렐레는 '뛴다'라는 뜻으로 '벼룩이 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이 4개다 보니 왼손의 움직임이 벼룩이 뛰는 것처럼 경쾌하게 움직이는 느낌인 거죠."
벼룩이 뛴다는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맑고 경쾌한 느낌이 나는 우쿨렐레를 이해하게 된 기분이 들었다.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베이스로 종류도 4가지가 있어요. 겉모습은 다 같아 보이지만 음역대가 다 달라요. 우쿨렐레의 모습도 처음엔 파인애플통 모양처럼 둥글었는데 소리의 울림이나 연주의 편의성을 위해 점점 개량이 되면서 지금 악기의 모습이 갖춰진 거죠." 명료하게 정리된 조미혜 단장의 설명으로 그동안 작은 기타로 알고 있던 우쿨렐레의 실체를 만나게 되었다.

2012년부터 7년을 함께 해온 단원들에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올해 있었던 활동들 중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궁금했다. "2019년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올해 11월 2일 율동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된 '소소콘서트'가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였는데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팀의 패셔니스타로 불리는 권수진 단원은 얼마 전 율동공원에서 열린 행사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꼽았다.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 올랐는데 제일 먼저 멜로디를 내야하는 제 악기가 소리가 나지 않는 사고가 있었어요. 악기에 연결된 마이크가 빠져 있었던 거죠. 다행히 빨리 수습해서 무사히 무대를 마쳤는데 앞으론 그런 실수가 없어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찔했던 그날의 일을 모든 단원이 기억하는 듯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눈빛들이 오갔다.

우쿨렐레의 밝고 따뜻한 음색은 누군가에겐 분명 위로의 메시지로 들릴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관객과 나눈 감동의 순간들이 궁금해졌다. 조미혜 단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머물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방문 공연 경험을 떠올렸다.
"우쿨렐레의 밝고 샤방한 음색이 어르신들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 연주할 때는 초점 없는 시선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쿨렐레로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트로트를 연주하자 갑자기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죠. 자신들이 불렀던 예전 노래의 기억이 나셨던지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몇분 안 되는 어르신들을 보며 감동을 받고 활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죠. 작은 무대였지만 그 무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관객 한사람의 눈빛 하나가 이들에겐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다.

"멤버 모두 같은 일에 종사하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다보니 기존 멤버들의 색깔이 너무 강해진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단원들이 합류할 때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나고 보니 그런 염려 때문에 새 멤버 영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좀 아쉬운 기억으로 남네요." 7년 전 싱글일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미애 단원. 그는 활동 중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언급했다. "저희가 소규모 그룹으로 움직이다보니 사정이 생겨 빠지는 인원이 생기면 소리가 비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점을 빨리 대비해서 인원보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에 이어 단원들에게 감사한 맘을 전하는 말도 덧붙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일 때부터 이 모임에서 활동했는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동안 한 세 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어요. 결혼, 대학원 공부, 임신, 육아로 과부하가 와서 잠시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멤버들이 가족처럼 보듬고 끌어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호회의 의미를 넘어 이젠 가족 같은 멤버들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습니다." 연신 단원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잃지 않고 말을 이어가던 이미애 단원. 그 표정에서 단원들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봉사하는 활동을 전개하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 꾸준히 누적되는 개인적인 소회도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활동을 한 지 벌써 7년이나 됐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어요. 시작 당시는 학원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배우게 됐고 그 역량은 충분히 쌓았는데 거기에서 멈추기엔 뭔가 아쉬움이 컸습니다." 노미희 단원은 7년 전의 활동 초기를 떠올렸다. "다행히 같은 일을 하시는 멤버 분들이 '뭔가를 배웠으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나가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봉사활동 갔을 때 찍었던 동영상을 최근에 다시 보게 됐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마 이 동호회 활동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머물러 있을 뿐 이렇게 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멤버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 모여서 연습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목표를 갖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제 삶에 활력소가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세계 우쿨렐레 페스티벌 같은 행사에도 참여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호회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전해주었다.

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장정윤 단원도 이야기를 보탰다. "사실 처음엔 배운다는 것 이외의 지향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보니 저 개인적이자 우리 동호회의 지향점은 다름 아닌 행복인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이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또 하나의 길을 경험하는 의미에서 성취감을 많이 느낍니다." 단원들과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멤버들끼리도 내가 하나를 건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할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무대에서 공연할 때의 행복, 멤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느끼는 행복 등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요. 신입단원이 들어오면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하고

새롭게 미래 지향점을 그리며 성장할 수 있어서 내년 활동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장정윤 단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이란 의미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행복, 그러나 돌아보면 정작 어딘가에 미뤄져 있는 행복. 순간마다 음악을 통해 행복을 느끼며 사는 라온제나 단원들은 정말 행복해보였다.

라온제나의 내년 활동도 무척 기대가되었다. 음악으로 행복한 라온제나를 만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팀에서 톡 쏘는 사이다 역할을 하는 이윤희 단원은 내년 활동에 대해 이런 의견을 보탰다. "한 해의 계획을 다 세우기보다 그때그때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신속, 정확하게 준비해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두 개인악기를 다루다보니 협연의 즐거움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은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이곳에선 배우는 입장에 서 본다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연습이 빛나는 곳이 무대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를 불러주시는 곳엔 어디라도 달려가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만의 이름보다 협연을 위주로 무대에 섰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라온제나의 이름을 걸고 무대에 서 보고 싶네요." 음악을 사랑하는 청자의 입장에서 라온제나의 연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질 만큼 역량이 충분했다.

팀의 청일점인 이준호 단원은 라온제나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덧붙였다.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에서 동호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300개가 넘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확장되는 추세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동호회가 지역을 넘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아마추어 활동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추어 생활문화동호인들의 모임이긴 하나 확실히 이들의 실력은 거기에 머물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창출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 같다는 기대감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팀에 합류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는 윤현숙 단원은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우쿨렐레는 남녀노소 접하기 용이한 악기입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정말 다양한 장르를 깊이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악기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쿨렐레를 기반으로 다른 악기와 노래 등과 협연하는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해 보고 싶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꿈꿔 봅니다." 팀에 합류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단원이었지만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서인지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이 닮아있었다.

한 시간에 가까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단원들이 자주 입에 올렸던 단어는 다름아닌 '소통', '공감', '치유', '행복'과 같은 단어들이었다.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다. 우쿨렐레의 밝고 따뜻한 음색과도 닮아있는 느낌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울림을 전하고 싶다는 라온제나 단원들. 앞으로 그들이 연주하는 행복한 우쿨렐레 소리가 성남지역을 넘어 다양한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길 진심을 다해 기대해본다.

# 포엠송
## 통기타와 함께 10년을 함께한 시와 노래

글/사진 박미리

10년을 이어온 사랑방클럽 통기타 동호회 포엠송

깜깜한 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와 앙상블 시어터 사이
빛의 계단을 타고 기타선율이 내려온다.
선율의 주인공은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 차 기타동아리 포엠송
봉사와 행사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며 우수 동아리 2회 시상에 빛나는
포엠송의 장수비결은 무엇일까?
한참 공연 준비 중인 이석우 회장을 비롯하여
동아리 회원(한유덕,김순희,김형미)을 만나보았다.

Q. 포엠송 결성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이석우 회장. 음악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던 차 2009년부터 여러 팀별 대표들이 모여 연합팀을 만들고 사랑방 공연과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통기타에 관심 있는 사람들(초창기 멤버 4명)을 필두로 포엠송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이 후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회원을 늘려나가게 됐지요.
현재 이석우 회장, 한 유덕, 김순희, 김형미, 강상희, 이승찬, 이유리, 김설희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포엠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석우 회장. poem song 시와 같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Q. 주로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요?
이석우 회장. 결성 이후 지금까지 200여 회 공연을 했는데요. 사랑방 프로젝트 프로그램, 복지관, 보건소, 북콘서트, 지역 행사 등 주로 재능기부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유덕. 지난 10월에는 무려 10번의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 세 번 공연 한 적도 있고요. 가족들에게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Q. 10년 유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유덕. 회장님의 무한한 오픈 마인드 열정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알려주시고 편곡, 기타주법도 직접 만들어 가르쳐 주신답니다.
아마추어 동아리에서 시작했지만 실력을 쌓아 다른 곳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실만큼 실력이 출중하신데요. 포엠송에서는 순수 동아리 회원으로서 재능을 기부하며 많은 지도를 해주고 계신답니다.

김형미. 이석우 회장님과 초창기 멤버 한유덕님이 튼튼한 기둥이 되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아주 두터워요.

한유덕. 이런 모임이 오래 가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 줘야 해요. 우리들처럼요

Q. 포엠송은 수상경력이 화려하던데요.

이석우 회장. 저는 NGO 가요제 성남 의장상으로 가수 데뷔도 했고요.
포엠송은 성남시 생활음악 페스티벌 경연 의장상을 받기도 했어요. 사랑방 클럽 모범 클럽상 2번, 모범 시민상 1번, 감사패 3번. 우리 수상경력 어마어마 합니다.

Q. 첫 공연은 어땠나요?

이석우 회장. 포엠송 창단 후 첫 공연 기억은 참 쓰립니다.
매일 밤11시까지 연습해 무대에 올랐지만 "딱 3개월 연습해 오른 것 같다."는 프로 베이스 연주가 선배형의 혹평을 들었죠.
그 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따로 쉬는 시간도 없이 손에 진물이 나도록 연습했어요. 1년 후 공연에서 "어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사운드가 너무 좋아졌다." 1년 전 혹평했던 선배형의 극찬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때 그 희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Q. 공연 중 기억나는 에피소드 소개해주세요.

이석우 회장. 아 에피소드 너무 많습니다.
분당 구청 자원봉사자의 날 1000여명 앞에서 공연하는데 공연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종이 악보가 다 젖고 우리도 다 젖은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연주를 했죠. 약속된 2곡이 끝난 후 천막이 설치되니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고생했는데 앙코르 안 하시나요?"
관객들은 앙코르를 외쳤고 앙코르 곡은 천막 아래서 비를 피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하 10도에서 중앙시장 상가 하나하나 방문해 연주와 노래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6~7년 전 상권활성화재단 기획 프로그램이었는데 장사하느라 시장에 공연이 있어도 상인들은 장사하느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가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공연을 했었답니다. 같이 따라 부르고 춤추고 상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Q. 포엠송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김순희. 회장님이 강사로 활동하는 외부 기타교실 수강생이기도 한데요.
기타 매력에 빠져 포엠송에서도 활동하게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에 모여 11시까지 연습해도 시간가는 줄 모르겠어요.

김형미. 저는 포엠송에서 객원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 기타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참여하게 됐답니다.

Q. 포엠송에서는 주로 어떤 곡을 연주하나요?

한유덕. 우리 나이에 비해 노래가 젊은 편이에요.그래서 빠르고 밝아요.

이석우 회장. 제가 생각하는 음악취향은 대중들을 위한 거예요.
공연장에서 대중적인 밝은 노래로 관객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Q. 포엠송 회원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석우 회장. 형식적인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초보인 분들은 따라오기 힘들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보는 벗어난 분들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은 필수입니다.

한유덕. 우리는 MT가서도 기타 연습해야 해요. 수업의 연장이에요.
놀면 좋겠는데 회장님이 자꾸 기타연주를 알려주고자 해요.
앉으나 서나 기타생각 회장님의 열정이 사실 우리도 버거운 때가 있어요.
우리 동호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실력이 없더라도 열정을 갖고 꾸준히 해서 늘 수 있는 분이라야 해요. 회장님은 나이 실력 상관없이 알고 있는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기타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 동아리입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석우 회장. 거창한 포부는 없고요. 꾸준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 공부하고 이어 나갔으면 해요. 대중 앞에 서는 일이 즐겁고 대중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삶의 행복입니다. 더 바란다면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타 열정 넘치는 분들이 포엠송을 더 채워주었으면 합니다.

기타의 매력에 풍덩 빠진 이들의 열정과
끈끈한 정을 느끼며 인터뷰를 마쳤다.
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기타연주
몇 해 전 한 번의 도전으로 좌절했던 쓰린 경험이 있다.
멜로디는 치겠는데 화음이 너무 어려운 거다.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다시 시간적 여유가 생겨 기타연주에 도전한다면
포엠송 문을 두드려보리라!

#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문화국장 인터뷰

## 동호회를 가꾸는 사람들, 생활문화동호회 이야기

일시 2019년 12월
장소 성남문화재단





Q.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으로 오신 이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A.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벽 허물기다. 지역문화예술인들과 문화재단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단과 친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행정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지역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나가려고 한다. 최근 들어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간담회도 시작했다. 계속해서 지역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한다.

Q. 최근 들어 사랑방문화클럽 대신 생활문화동호회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유는?

A. 성남에는 사랑방문화클럽과 소속되지 않고 생활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것은 생활문화의 활성화와 네트워킹 문화교류를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작할 때는 재단에서 많은 부분 담당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생활문화동호회를 부각시키는 것은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에서 유일한 생활문화동호인 모임은 아니지 않는가?'는 시각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을 좀 더 확대한 의미로 '성남지역에 더 많은 생활문화동호인을 품어 안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사업명이나 대외적으로 생활문화동호회라는 명칭을 강조하고 있다.

Q. 그럼 사랑방문화클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큰 틀에서 사랑방문화클럽도 생활문화동호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이 만들어진지 13년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지역에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시스템이지만, 내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기 위한 변곡점에 서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Q. 그럼 생활문화동호회 안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생활문화예술인과 전문 예술인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활문화를 하시는 동호인들께서도 전문 예술인들 못지않게 예술적 자부심이 강하신 편이다. 그런 이유로 재단에서는 딜레마가 생기기도 하지만, 긍극적으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자유로운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하시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다. 그러나 생활문화동호인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문화동호회의 모양이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재단에서도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면?

A.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각은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무대에서 전시장 등 문화창작 공간에서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효율성이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동호인 한마당이라든가 문화공헌 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을 지역의 각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나 각 장르별 매칭 등 다각도로 사업을 편성할 예정이다.

Q. 생활문화동호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가?

A. 두 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첫번째로는 생활문화동호회의 각 동호회의 지속성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한다. 생활문화예술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면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문화동호회의 각 동호회를 보면 비슷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모인 동호회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이지 않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동호인이 생긴다. 그러면 그 동호회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제 경험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세대가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쟁이나 갈등이 세대 안에서 완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세대 간 조화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 각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크고 작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막'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은퇴 후에도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또 다른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단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Q. 성남의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많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A.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걱정도 있고,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Q. 올해 첫 발은 내딛은 생활문화동호회가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A. 올 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문화공헌 프로젝트라고 성남시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공연 진행하는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
그리고 생활문화동호회 한마당이라는 사업은 동호인들에게 공모를 받아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내년에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함께할 수 잇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역을 찾아가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사업을 펼칠 생각이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소액다건'보다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해서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생활문화동호회 한마당은 내년부터는 하루에 몰아서 진행하는 것은 동호인들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횟수를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특히 생활문화동호회 한마당은 생활문화동호인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의 재주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체계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생활문화동호인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A.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모임을 가든 사회활동을 하시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나의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대에 올라가서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 성취감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자존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생활문화활동의 본질이고 그런 부분을 항상 가슴이 새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생활문화동호회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 문화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해서 생활문화동호인들은 물론 성남시민들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성남문화재단 송승태 부장 인터뷰

## 동호회를 가꾸는 사람들, 생활문화지원부 이야기

일시 2019년 12월
장소 성남문화재단





Q. 올해 첫 성남생활문화동호회를 맞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A. 달리 어떤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제 자신 또한 문화예술인이다 보니 그냥 편했고 좋았다.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시강사협의회 등 성남시 관내 생활문화 동호회가 성공적 축제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회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생각이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어려운 점은 없었나?

A. 사랑방문화클럽과 성남시강사협의회, 그리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클럽 등이 모이다 보니 각자의 입장이 있고 사실 태생 또한 다르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간극을 메꾸고 협력해 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렇게 될 것이다.

Q. 생활문화동호회와의 관계나 실무자로서 겪는 느낌은?

A.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대표적인 것이 사랑방문화클럽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식의 얘기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성남문화재단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다.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Q. 현재의 생활문화동호회를 평가한다면?

A. 크게 볼 때 생활문화동호회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생활문화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단지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조금 더 절박하게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Q. 올해 생활문화동호회와 함께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A.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조금만 더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많이 느꼈다. 고민도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또한 뭘 어떻게 효율성 높게 받쳐주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

Q. 2020년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만들어가실 생각인가?

A. 생활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문화예술정보의 DB 구축과 생활문화예술단체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 확대, 이를통한 생활문화예술의 질적, 양적 확장이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A.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활동과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또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Ⅱ 생활문화 동호회 한마당

시민과 거리에서
멋과 흥이 넘치는 한마당
기억하자 광복! 잊지말자 역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마리오의 즐거운 음악여행
성남 사람사랑 캐리커쳐
생활예술이 꽃피는 우리동네 골목시장
따로 또 같이 불자
아빠는 열애중
희희낙락
2019 여름 향기
시민과 함께 부르는 힐링노래 한마당
여름이 노래하고 가을이 춤추래
2019 록케이션
우리동네 음악대장
문화가 꽃피는 성남

# 시민과 거리에서

야탑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생활문화동호회의 회원들의 흥겨운 선율과 아름다운 몸짓에 때이른 더위를 잊었다.
생활문화동호회에 소속된 뮤젤밴드/ 청실홍실/ 가언무용단/ 행복한사람들/ 함성/ 써든리/ 룰루라라 팀이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일시 2019년 7월 13일
장소 야탑역 광장





분주하게 오가는 시민들이 하나 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을 본다. 빠른 리듬의 타악, 흥겨운 민요, 기타 연주, 섹소폰 연주, 아름다운 선을 가진 우리 춤, 추억의 7080 노래들이 차례로 선을 보이자 시민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박수로 화답한다.

'시민과 거리에서' 공연은 생활문화동호회의 7개 팀이 꾸미는 무대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춤과 노래 그리고 흥겨운 음악을 보여준다. 공연을 함께하는 시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공연을 즐겼다. 공연 막바지에는 공연자들이 무대 밖으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기며 시민이나 공연자의 구분없이 함께 하는 모습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광경이었다.

# 멋과 흥이 넘치는 한마당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2019년 8월 26일 오후 7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는 세대공감(소리자람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주관으로 '멋과 흥이 넘치는 한마당'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한국생황악회를 비롯해 가악풍류회, 한울림 창극단, 천향 국악단, 춤뜨락 무용단, 사물놀이 쾌지나, 소리자람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해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전통예술의 진한 매력을 뽐냈다.

한국생황악회의 생황 연주는 우리 소리의 깊은 울림을 보여줬고, 한울림 창극단은 전통 뮤지컬인 창극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천향 국악단, 춤뜨락 무용단, 사물놀이 쾌지나, 가악 풍류회도 다채로운 연주와 무용으로 객석의 뜨거움을 더했다.

공연을 함께한 관객들은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 기억하자 광복!
## 잊지말자 역사!

###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한다.

올해는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외면이라도 하듯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을 문제 삼으며, 국내 기업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규제했다.

이에 맞서 시작된 일본불매운동은 하나의 큰 물결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말을 나누며 일본 자동차를 비롯해 옷과 맥주에 이르기까지 일본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물론 일본여행까지 불매하며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억하자 광복! 잊지말자 역사!' 공연은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공연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의 것이고,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번 공연이 더욱 뜻깊은 것은 성남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의병장 동천 남상목 선생의 손자인 남기형 (사)동천 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 회장이 참석해 공연의 의미를 더했기 때문이다.

단지 흥겨운 음악과 춤만 있는 공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하는 공연으로 그 어떤 공연보다 뜻깊은 공연이었다.

###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억하자 광복! 잊지말자 역사!' 공연은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공연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의 것이고,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번 공연이 더욱 뜻깊은 것은 성남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의병장 동천 남상목 선생의 손자인 남기형 (사)동천 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 회장이 참석해 공연의 의미를 더했기 때문이다.

### '기억하자 광복! 잊지말자 역사!

공연을 넘어 의미가 된 이번 '기억하자 광복 잊지말자 역사!'는 생활문화동호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다. 생활문화예술을 하는 동호인들은 사회나 역사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예술만 하면 된다는 기존 인식을 바꿔 놓았다.

단지 흥겨운 음악과 춤만 있는 공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하고, 관객들도 공연의 의미에 동참해 공연자와 관객이 민족과 역사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그 어떤 공연보다 뜻깊은 공연이었다.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한 여름밤의 음악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음악회**
2019년 8월 24일. 불곡고등학교 앞 야외 수영장 탄천 특설무대에는 절정에 이른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공연이 열렸다.
색소폰, 사물놀이, 통기타, 경기민요, 우쿠렐라, 기타밴드, 진도북춤의 향연이 펼쳐졌다. 더위를 피해 탄천에 나온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한 여름밤의 음악회'는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의 '소통'과 '협업'이 만들어낸 한마당이었다.

한 여름밤의 음악회

# 마리오의 즐거운 음악여행

### 지하철에서 만나는 오케스트라

'마리오의 즐거운 음악여행'이라는 타이틀에서 '마.리.오'의 뜻을 아시나요? 흔히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그것은 '마이리틀 오케스트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의 작은 오케스트라가 신분당선 판교역으로 즐거운 음악여행을 떠났습니다.

크고 웅장한 공연장에서나 만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지하철 역사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서부터 성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까지 나이는 다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휘자의 작은 손동작까지 집중하며 만들어내는 음악은 지하철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의 귀를 사로 잡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는 사람도 이천으로 가는 사람도 행선지는 다르지만, 잠시 발길을 멈추고 '마리오'와 함께 즐거운 음악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베토벤이 함께 합니다. 다음은 바하. 다음은 슈베르트. 이번엔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까요?

작지만 큰 울림으로 조금은 삭막해 보이는 지하철 역사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은 '마리오의 즐거운 음악여행'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상에 잠시나마 꿈같은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 성남 사람사랑 캐리커쳐

인물의 특징을 잡아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효과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캐리커쳐의 매력이다.

**캐리커쳐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환지원부 직원이 모델로 나섰다. 모델을 앞에 두고 둘러앉은 회원들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눈썰미있게 모델들의 특징을 잡아낸다. 어떤 부분은 크게, 어떤 부분은 작게... 머리모양, 얼굴형태, 눈, 코, 입, 귀. 그림을 완성해서 품평을 듣는 데까지는 30분 남짓.

모델의 얼굴을 수도없이 쳐다본다. 모델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눈빛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 같다. 어느덧 완성된 그림. 외형은 우수꽝스럽지만 사랑이 담겨있다. 동호회 이름이 왜 '사람사랑 캐리커쳐'인지 이제야 알겠다. 모델을 사랑하는 마음없이는 캐리커쳐도 태어나지 못할 것 같다. 캐리커쳐는 사랑입니다.

# 생활예술이 꽃피는 우리동네 골목시장

골목시장과 성남 생활문화동호회가 함께 만드는 웃음꽃!
대형유통점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등으로 오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골목시장.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서 한적하다 못해 을신년스럽기까지한 골목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돈다. 오늘은 성남 생활문화동회의 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생활예술이 꽃피는 우리동네 골목시장' 공연은 성남 생활문화동호회가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상권을 살리는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 생활하는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경기민요와 색소폰의 흥겨운 소리가 골목시장을 가득 매우자 지나던 시민들이 발길을 멈춘다. 오랜 불황으로 굳었던 상인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성남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간의 소통과 협업의 시작점이 된 '생활예술이 꽃피는 우리동네 골목시장'은 성남 생활문화동호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공연이었다.

'혼자가면 빨리갈 수 있지만, 함께가면 멀리갈 수 있다.'는 말처럼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남 생활문화동호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까치호프
돌하루스
CCTV녹화중

751-4818
팔구사

# 따로 또 같이 불자

### 바람의 소리를 듣다

'따로 또 같이 불자'는 팬플룻, 오카리나, 리코더, 플룻 등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들로만 구성된 공연이었다. 다양한 악기에 생명을 불어 넣듯 청아한 멜로디는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관객의 숨소리까지 공연의 일부가 될 정도로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공연은 오래도록 관객들의 기억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로 또 같이 불자

따로 또 같이 불자

# 아빠는 열애중

연극과 노래로 표현되는 현대 가족의 사랑 지침서

연극과 음악, 미술의 종합적인 예술무대를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직 생활문화동호회이기에 가능한 공연이다.

'아빠는 열애중'은 정보화사회로 인해 소외되어가는 현대 가족들에게 부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을 연극과 노래로 표현한다.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애를 회복해 나가는 행복한 이야기.

생활문화동호회가 각자의 장르를 콜라보해 하나의 음악극을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생활문화동호회가 나아가 알 길을 보여주는 듯 했다.

# 희희낙락

골목 안의 하늘 꽃밭

상대원1,3동의 골목은 동네 어르신들의 놀이터다. 하지만, 이 놀이터에는 햇볕을 가릴 차양막도 앉아 쉴 의자도 없다. 이렇게 삭막하기 그지 없는 골목에 하늘 꽃밭이 생겼다.

햇볕을 막는 차양막에서 예쁜 모양의 그림이 바닥에 새겨진다. 이 곳은 아이들의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차양막과 함께 예술포장마차파티가 열렸다. 이 포장마차에서는 예술과 행복을 판다. 마을공예활동가들이 포장마차에서 주문을 받고 함께 해보는 파티가 열렸다.

조용하고 삭막했던 골목이 정과 예술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

# 여름향기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을 가득 메우는 진한 여름의 향기

### 전시예술의 결정판을 체험하다

공예, 사진, 회화의 장르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성남 생활문화동호회에서만 가능한 프로젝트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참을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은 흔치않은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듯 같은 장르의 작품들을 보며 끝을 모르는 전시예술의 세계로 빠져든다.

작품마다 함께 붙어있는 손바닥만한 작품설명을 자세히 읽고 있다 보면 그림에는 문외한인 사람도 마치 전문가인냥 폼을 잡게 된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기울였을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생활문화동호회이기에 가능한 전시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진다.

# 시민과 함께 부르는 힐링노래 한마당

여섯줄 기타선율과 함께하는 힐링

가을이 무르익은 10월의 어느 날.
탄천변에서 들려오는 귀익은 음악소리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눈녹듯 사라진다. 계절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기타소리에 익숙한 노랫말까지...
'시민과 함께 부르는 힐링노래 한마당'이라 제목처럼 함께한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제대로 된 힐링을 선물하고 있었다.
탄천변에서 울려퍼지는 여섯줄 기타의 멜로디는 힐링 그자체가 되는 공연이었다.

# 여름이 노래하고 가을이 춤추래

**시원한 맥주와 함께 여름을 노래하다.**
2019년 8월 25일.
여름 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어느 여름날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2층 이벤트 광장 야외무대에서는 시원한 맥주와도 같이 더위를 식혀주는 공연이 열렸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흥겨운 여름 노래들로 더위에 지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하는 음악은 신비로운 힘을 가진 듯하다.
지금은 여름을 노래하고 있지만, 올 해 여름도 가겠지?





**진한 커피향과 같이하는 가을날의 왈츠**
공연장 주변에는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타를 튜닝하고, 서로의 볼륨을 맞추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팀들을 옷차림을 보면서 가을을 느낀다.
이윽고, 시작된 공연은 '가을이 춤추래'란 공연명처럼 가을 노래들로 풍성하고, 노래를 듯고 있노라면 나는 어느덧 가을의 한적한 공원을 걷고 있다.

# 2019 록케이션

록스프릿 '자유'
2019년 10월 5일.
야탑역 광장에서는 2019 록케이션 공연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록그룹들의 공연이었다.
젊음을 상징하는 록음악은 야탑역 광장을 집어 삼킬 듯 강렬했다. 하드락, 소프트락, 락발라드, 브리티쉬 락으로 이어지는 록음악의 향연은 야탑역 광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아이돌 그룹의 홍수 속에서 록음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생활문화동호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크게 외쳐보자. "락앤롤!"

# 우리동네 음악대장

우리동네에서 음악대장은 누구일까?
'우리동네 음악대장'은 성남문화재단이 지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행하는 노래자랑이다. 지역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독려하고 모두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예선을 통해 뽑힌 참가자들이 결승에서 노래실력을 겨룬다. '우리동네 음악대장'은 단순한 노래자랑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이다.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음악대장', 내년을 기대해 주세요~!

## 문화가 꽃피는 성남

문화가 꽃피는 생

# Ⅲ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

소소콘서트

생활문화 동호회 어울림 한마당

# 소소콘서트

**성남시민을 위한 마법같은 공원음악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을향기와 함께 즐기는 성남문화재단의 문화공헌 프로젝트로 열린 소소콘서트는 분당요들클럽 주관으로 율동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음악을 자유롭게 즐기며 가을을 즐겼다. 성남시민들과 성남생활문화동호회를 이어주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인 것 같다.

# 생활문화 동호회 어울림 한마당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막지 못한 문화예술에대한 열정.

한 해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생활문화 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전면 취소되자 집행부는 물론 동호회 소속 회원들은 공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나 성남생활문화동호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리는 어울림 한마당이라 행사 취소라는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남생활문화 동호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비록 시민들에게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 홀에서 성남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한마당을 열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1년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선보일 기회가 생긴 것이다.

회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했다. 무산될 수 있었던 공연이라 회원들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공연은 뜨거웠다. 최선을 다한 공연에 회원들은 서로에게 더욱 큰 박수와 함성으로 답했다. 비록 작은 규모로 열린 성남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한마당이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공연이 되었다.

# Ⅳ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평가

2019 활동 보고회

# 2019 활동 보고회

**한 해동안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2020년에는 생활문화동호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동호회 모임인 사랑방문화클럽이 한자리에 모여 2019년 일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회를 열렸다.

2019년 12월 6일,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문화국장과 곽윤부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송승태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부장을 비롯해 150여명의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방문화클럽 활동보고회가 열렸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모든 클럽이 참가한 활동보고회는 폴앙상블의 아름다운 팬플루트 연주로 시작되어 오카리나 연주로 이어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곽윤부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클럽 26개가 있다. 성남에 사랑방 문화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생활문화동호회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회원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 전시를 못한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잘 이끌어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문화국장은 "우리로 하여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은 대표적은 예술 모임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방문화클럽을 배우러 오고 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동안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참석자들 모두 자신들의 활동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다.

계속해서 한 해동안 성남시 생활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사랑방문화클럽 발전을 위해 노력한 2019년 사랑방 모범클럽 시상이 이어졌는데, 사랑방문화상(시장상)에 이희일 위원장을 비롯해 전시 2개 클럽과 공연 4개 클럽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새롭게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한 신규 클럽지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성남모란노리터 클럽의 마무리 공연으로 2019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보고회를 마쳤다.

성남을 넘어 전국 최고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로 인정받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이 2020년부터는 생활문화동호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한 단계 성장하는 생활문화동호회 사랑방문화클럽을 기대해 본다.

# V 생활문화 동호회 리스트

2019 참여 동호회

# 2019 참여 동아리

## 1. 국악(타악, 관현악)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풍물 | 풍물굿패 우리마당 | 강은아 |
| 2 | 풍물 | 풍물굿패 두렁 | 문정숙 |
| 3 | 풍물 | 서현풍물패 | 은원자 |
| 4 | 풍물 | 풍물패 터줏 | 최경숙 |
| 5 | 풍물 | 풍물공동체 네트워크 | 노지미 |
| 6 | 풍물 | 소리샘 | 박채현 |
| 7 | 풍물 | 동네사람들 | 장계석 |
| 8 | 모듬북 | 천둥난타 | 홍선희 |
| 9 | 모듬북 | 드림난타 | 김순이 |
| 10 | 모듬북 | 모듬북을사랑하는모임 | 이진희 |
| 11 | 타악 | 태평설장구패 | 강정자 |
| 12 | 타악 | 승승장구 | 김현호 |
| 13 | 모듬북 | 타락난타 | 최경숙 |
| 14 | 각설이 | 아라리오 | 윤희정 |
| 15 | 모듬북 | 라벨비 | 김미선 |
| 16 | 모듬북 | 화랑난타 | 김현진 |
| 17 | 가야금 | 세가동(세경가야금동아리) | 심지현 |
| 18 | 관현악 |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 김민정 |
| 19 | 관현악 | 성남세경국악실내악단 | 김경식 |
| 20 | 관현악 | 천향국악단 | 김계희 |
| 21 | 관현악 | 국악앙상블 그랑 | 이상호 |
| 22 | 관현악 | 성남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가현 | 강대현 |
| 23 | 모듬북 | 한울림난타 | 안은영 |
| 24 | 관현악 | 소리자람청소년국악관현악단 | 김계희 |
| 25 | 정악 | 가악풍류회 | 송규정 |
| 26 | 모듬북 | 신드리난타 | 신애자 |
| 27 | 사물 | 야탑3동 보리 | 김은수 |
| 28 | 모듬북 | 율 | 김은수 |

# 2019 참여 동아리

## 2. 민요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민요 | 경기민요 청실홍실 | 강지숙 |
| 2 | 민요 | 소리친구회 | 심선영 |
| 3 | 민요 | 소리사랑회 | 김복심 |
| 4 | 민요 | 마중물 | 김나경 |
| 5 | 민요 | 우리소리예술단 | 정점순 |
| 6 | 민요 | 김영자민속예술단 | 김영자 |
| 7 | 판소리 | 락&판 | 이효덕 |
| 8 | 판소리 | 무정세월 | 최지영 |
| 9 | 민요 | 한가락국악예술단 | 황윤정 |
| 10 | 병창 | 미소가야금병창 | 차보영 |
| 11 | 병창 | 어울림가야금병창 | 김향림 |
| 12 | 민요 | 청사초롱국악단 | 김준 |
| 13 | 민요 | 태평성대 | 현호임 |
| 14 | 판소리 | 한울림창극단 | 김예슬 |



## 3. 합창·중창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합창 | 을지레인보우합창단 | 윤영배 |
| 2 | 합창 | 이듀스매스터코랄 | 김선구 |
| 3 | 합창 | 씨밀레콰이어 | 신응철 |
| 4 | 합창 | 비전콰이어 | 안예환 |
| 5 | 합창 | 한신유스콰이어작은물소리 | 이상아 |
| 6 | 합창 | 성남시장애인합창단 | 길봉진 |
| 7 | 합창 | 원음합창단 | 김성진 |
| 8 | 합창 | 아주소년소녀합창단 | 윤명애 |
| 9 | 합창 | 고령친화체험관시니어합창단 | 한영애 |
| 10 | 합창 | 남성합창단 등대 | 정종태 |
| 11 | 아카펠 | 하이파이브 | 고웅 |
| 12 | 요들 | 분당요들클럽 | 김혜정 |
| 13 | 합창 | 사랑방합창단 | 변세학 |
| 14 | 남성 | 그린비남성합창단 | 남기현 |
| 15 | 여성 | 단미합창단 | 유지선 |
| 16 | 합창 | 한국119소년소녀합창단 | 강동수 |
| 17 | 중창 | 벨칸토 | 김정진 |
| 18 | 노래 | 해피마마스 | 조민숙 |
| 19 | 중창 | 드라이 프라우엔 | 이지현 |
| 20 | 보컬 | 어쿠스틱캔터스 | 이선이 |

# 2019 참여 동아리

## 4. 밴드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밴드 | 자율학습 | 박병준 |
| 2 | 밴드 | punos | 이현창 |
| 3 | 밴드 | 그룹 LH밴드 | 고의환 |
| 4 | 밴드 | 성남시공무원밴드 사우스캐슬 | 김근종 |
| 5 | 밴드 | 음악공간 | 장연웅 |
| 6 | 밴드 | RED | |
| 7 | 밴드 | 황병진팝스밴드 | 황병진 |
| 8 | 밴드 | 샘트론밴드 | 원민영 |
| 9 | 밴드 | 웰컴밴드 | 김영철 |
| 10 | 밴드 | 뮤직러스 | 김윤영 |
| 11 | 밴드 | 카멜레온 | 남희 |
| 12 | 종합 |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 김진배 |
| 13 | 밴드 | 신정희밴드 | 함남진 |
| 14 | 밴드 | 버킷 | 정현성 |
| 15 | 밴드 | 푸른바다 | 유승용 |
| 16 | 경음악 | 시니어 어울림 경음악단 | 김영준 |



## 5. 현악(클래식기타, 만돌린)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기타 | 로스아미고스기타합주단 | 장남숙 |
| 2 | 기타 | 로망스기타합주단 | 길혜주 |
| 3 | 기타 | 알함브라기타앙상블 | 김구 |
| 4 | 기타 | 세실기타합주단 | 이희일 |
| 5 | 만돌린 | 미멜만돌린앙상블 | 윤자희 |
| 6 | 만돌린 | 정자만돌린앙상블 | 임숙남 |
| 7 | 만돌린 |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 박상미 |
| 8 | 만돌린 |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 | 제갑정 |
| 9 | 만돌린 | 아르떼만돌린오케스트라 | 최경숙 |

# 2019 참여 동아리

## 6. 색소폰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밴드 | 뮤플러스밴드 | 권동진 |
| 2 | 색소폰 | 늘푸른색소폰앙상블 | 김기덕 |
| 3 | 색소폰 | 분당색소폰클럽 | 오금성 |
| 4 | 색소폰 | 해피색소폰동호회 | 박미자 |
| 5 | 밴드 | 99빵빵클럽 | 황종걸 |
| 6 | 색소폰 | 신구윈드색소폰동호회 | 서현자 |
| 7 | 색소폰 | 조이색소폰 | 송귀택 |
| 8 | 색소폰 | 분당소리사랑색소폰동호회 | 임민순 |
| 9 | 색소폰 | 정색소폰 | 민찬기 |
| 10 | 색소폰 | 풀시티앙상블 | 임경춘 |
| 11 | 색소폰 | 소윤사랑방색소폰 | 이소윤 |
| 12 | 색소폰 | 버디색소폰앙상블 | 김한수 |
| 13 | 색소폰 | 해피앤뮤직 | 김병주 |
| 14 | 색소폰 | 소리향기 | 최신 |
| 15 | 밴드 | 성남뮤젤밴드 | 배종환 |
| 16 | 색소폰 | 스마일 뮤직 클럽 | 전종국 |
| 17 | 색소폰 | 오렌지색소폰 | 유광영 |
| 18 | 색소폰 | 성남시니어오케스트라 | 정봉 |
| 19 | 색소폰 | 풀잎소리 | 이병석 |
| 20 | 색소폰 | 청바지밴드 | 김건택 |
| 21 | 색소폰 | 탑색소폰클럽 | 남윤영 |
| 22 | 색소폰 | 모란 문화 예술단 | 김건택 |

# 2019 참여 동아리

## 7. 현악(클래식기타, 만돌린)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기타 | 로스아미고스기타합주단 | 장남숙 |
| 2 | 기타 | 로망스기타합주단 | 길혜주 |
| 3 | 기타 | 알함브라기타앙상블 | 김구 |
| 4 | 기타 | 세실기타합주단 | 이희일 |
| 5 | 만돌린 | 미멜만돌린앙상블 | 윤자희 |
| 6 | 만돌린 | 정자만돌린앙상블 | 임숙남 |
| 7 | 만돌린 |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 박상미 |
| 8 | 만돌린 |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 | 제갑정 |
| 9 | 만돌린 | 아르떼만돌린오케스트라 | 최경숙 |



## 8. 종합연주(우쿨렐레, 아코디언 등)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우쿨렐레 | 점핑플리즈 | 김말숙 |
| 2 | 우쿨렐레 | 라온제나 | 조미혜 |
| 3 | 우쿨렐레 | 분당아코동호회 | 최정상 |
| 4 | 밤벨 | 천사들의 하모니 | 김경혜 |
| 5 | 앙상블 | 앙상블라 | 김규진 |
| 6 | 우쿨렐레 | 분쿨우쿨렐레앙상블 | 정혜선 |
| 7 | 우쿨 | 우쿨즈 | 설진아 |
| 8 | 아코디언 | 성남아코디언동호회 | 이영기 |
| 9 | 아코디언 | 아코디언향기 | 장옥희 |

# 2019 참여 동아리

## 9. 어쿠스틱 기타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포크 | 고은소리 | 김숙자 |
| 2 | 포크 | 여섯줄사랑 | 도명수 |
| 3 | 포크 | 포엠송 | 이석우 |
| 4 | 포크 | 에코하모니밴드 | 김양희 |
| 5 | 포크 | 기타홀릭 | 이승용 |
| 6 | 포크 | 기타애락 | 홍경숙 |
| 7 | 포크 | 라라밴드 | 전명구 |
| 8 | 포크 | 논골 신나는기타교실 | 김순희 |
| 9 | 포크 | 바람과구름 | 신근호 |
| 10 | 포크 | 기타산책 | 장한결 |
| 11 | 포크 | 통클 | 김연수 |
| 12 | 포크 | 사랑나눔하모니 | 채노마 |
| 13 | 블루그래스 | 한국블루그래스음악클럽 | 임영민 |
| 14 | 포크 | 아메리카노 | 김현숙 |
| 15 | 포크 | 통통브릿지 | 하영수 |
| 16 | 포크 | 흰여울 | 김승경 |
| 17 | 포크 | 이구동성 | 나명철 |
| 18 | 포크 | 사랑방팝앙상블 | 기영숙 |
| 19 | 포크 | 성남모란노리터 | 안희식 |



## 10. 관악(플룻, 오카리나 등)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오카리나 | 폴 앙상블 | 조은혜 |
| 2 | 오카리나 | 성남챔버오카리나앙상블 | 임영미 |
| 3 | 플룻 |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 김형미 |
| 4 | 플룻 |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 나영임 |
| 5 | 플룻 | 원플룻앙상블 | 우승옥 |
| 6 | 플룻 등 | 올레 | 신우영 |
| 7 | 오카리나 | 함성 큐브오카리나 | 류혜연 |
| 8 | 플룻 | The Golden Age 플룻오케스트라 | 최정연 |
| 9 | 플룻 | 아싸이플룻앙상블 | 김용미 |
| 10 | 플룻 | 아다지오 | 김향숙 |
| 11 | 리코더 |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 유종순 |
| 12 | 오카리나 | 동그라미오카리나 | 윤영숙 |
| 13 | 하모니카 | 옥수수하모니카 | 지숙희 |
| 14 | 오카리나 | 오카리나 마을 | 최정호 |
| 15 | 오카리나 | 성남시민오카리나오케스트라 | 박정자 |

# 2019 참여 동아리

## 11. 무용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벨리댄스 | 카밀라폴&벨리댄스 | 김도연 |
| 2 | 댄스 | 샤론클럽 | 이성여 |
| 3 | 한국무용 | 하모니무용단 | 김순옥 |
| 4 | 한국무용 | 이매 우리춤 | 하미영 |
| 5 | 댄스스포츠 | 블루밍 | 김은자 |
| 6 | 치어리딩 | SPIRAL | 김보라 |
| 7 | 한국무용 | 전통춤경기교방 | 정순이 |
| 8 | 훌라 | 뉴 알로하 | 김순덕 |
| 9 | 무용 | 마모글로벌교육문화협동조합 | 전춘화 |
| 10 | 무용 | 스페인무용꼼빠니아 | 김명순 |
| 11 | 무용 | 용감한댄서들 | 전혜정 |
| 12 | 벨리댄스 | 해나 | 조규진 |
| 13 | 라인댄스 | 다문화 춤 이팔청춘 | 장명자 |
| 14 | 탱고 | 탱고 꼬라손 | 윤종한 |



## 12. 관현악(오케스트라)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오케스트라 | 분당청소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라윤경 |
| 2 | 오케스트라 | 마제스틱청소년오케스트라 | 홍용만 |
| 3 | 오케스트라 | 글로벌리더청소년오케스트라 | 엄혜경 |
| 4 | 오케스트라 | 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 오미주 |
| 5 | 오케스트라 | 분당챔버오케스트라 | 김진숙 |
| 6 | 오케스트라 | 분당쉰드오케스트라 | 김태선 |
| 7 | 실내악 | 성남목관앙상블 | 김용우 |
| 8 | 첼로 | 첼로포니아 | 이혜원 |
| 9 | 바이올린 | 하늘소리예술단 | 장경환 |
| 10 | 타악.관악 | 도프앙상블 | 김강민 |
| 11 | 클래식 | 유앤아이 | 이예진 |
| 12 | 앙상블 | 앙상블더레브 | 권성혜 |
| 13 | 앙상블 | 세바스트링 | 감아영 |
| 14 | 청소년오케 | 초원교실 | 김선희 |

# 2019 참여 동아리

## 13. 종합장르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댄스 |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 정천석 |
| 2 | 종합 | 분당사랑A&C | 정길선 |
| 3 | 교육 |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 오일화 |
| 4 | 동화구연 | 책이랑 냠냠 | 이은정 |
| 5 | 문학 | 해동문학 | 우병택 |
| 6 | 문학 | 성남탄천문학 | 조선형 |
| 7 | 시낭송 | 재미나는 시낭송 | 장미라 |
| 8 | 심리상담치료 | 성남분당예술치료협회 | 김선영 |
| 9 | 교육 | 아름다운인생학교 | 백만기 |
| 10 | 전래놀이 | 전래놀이를 사랑하는 모임 | 이선미 |
| 11 | 독서미술 | BOOK나라 스케치북스 | 김수미 |
| 12 | 종합 | 트리니티 | 김아현 |
| 13 | 문학 | 산성문학 | 김정일 |
| 14 | 소리 | 소리팩토리 | 김소영 |
| 15 | 독서모임 | 서른이 | 강미선 |
| 16 | 퍼포먼스 | 타악퍼포먼스 블랙스틱스 | 곽윤부 |
| 17 | 문학 | 청향문학문인협회 | 정정숙 |
| 18 | 페이스페인팅 | 헤움페페 | 정성희 |



## 14. 회화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사진 | 포토저널 성남 | 선순남 |
| 2 | 회화 | 아트미 | 김정순 |
| 3 | 회화 | 늘그림 | 최병오 |
| 4 | 수채화 | 예다움 | 구은옥 |
| 5 | 회화 | 하나로210 | 이인호 |
| 6 | 수채화 | 하늘빛아뜰리에 | 조진순 |
| 7 | 캘리그라피 | 캘리애 | 곽은영 |
| 8 | 수채화 | 분당수채화가회 | 전성란 |
| 9 | 수채화 | 수선화 | 김정숙 |
| 10 | 수채화 | 다사랑회 | 박봉덕 |
| 11 | 수채화 | 아따피 | 조송주 |
| 12 | 아크릴 | 도화지애 | 양정임 |
| 13 | 크로키 | 분당 '해' 드로잉 | 김수경 |
| 14 | 민화 | 분당민화 | 손은주 |
| 15 | 민화 | 바림(민화동아리) | 안명옥 |
| 16 | 캘리그라피 | 수묵캘리향기 | 김시형 |
| 17 | 캘리그라피 | 묵향나눔 | 황금선 |
| 18 | 한국서예 | 한사랑(한글서예) | 강현주 |
| 19 | 드로잉 | 드바세 | 이지나 |

# 2019 참여 동아리

## 15. 공예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댄스 |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 정천석 |
| 2 | 종합 | 분당사랑A&C | 정길선 |
| 3 | 교육 |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 오일화 |
| 4 | 동화구연 | 책이랑 냠냠 | 이은정 |
| 5 | 문학 | 해동문학 | 우병택 |
| 6 | 문학 | 성남탄천문학 | 조선형 |
| 7 | 시낭송 | 재미나는 시낭송 | 장미라 |
| 8 | 심리상담치료 | 성남분당예술치료협회 | 김선영 |
| 9 | 교육 | 아름다운인생학교 | 백만기 |
| 10 | 전래놀이 | 전래놀이를 사랑하는 모임 | 이선미 |
| 11 | 독서미술 | BOOK나라 스케치북스 | 김수미 |
| 12 | 종합 | 트리니티 | 김아현 |
| 13 | 문학 | 산성문학 | 김정일 |
| 14 | 소리 | 소리팩토리 | 김소영 |
| 15 | 독서모임 | 서른이 | 강미선 |
| 16 | 퍼포먼스 | 타악퍼포먼스 블랙스틱스 | 곽윤부 |
| 17 | 문학 | 청향문학문인협회 | 정정숙 |
| 18 | 페이스페인팅 | 헤움페페 | 정성희 |



## 16. 신규가입

| no | 장르 | 클럽명 | 대표 |
|---|---|---|---|
| 1 | 관악(오카) | 옥수수 하모니카 | 지숙희 |
| 2 | 국악(타악) | 신드리 난타 | 신애자 |
| 3 | 국악(타악) | 드림 난타 | 김순이 |
| 4 | 무용 | 다문화 춤 '이팔청춘' | 장명자 |
| 5 | 합창 | 드라이 프라우엔 | 이지현 |
| 6 | 문학 | 청향 문학문인협회 | 정정숙 |
| 7 | 밴드 |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 김진배 |
| 8 | 밴드 | 신정희 밴드 | 함남진 |
| 9 | 색소폰 | 모란 문화 예술단 | 김건택 |
| 10 | 민요 | 한울림창극단 | 김예슬 |
| 11 | 오케스트라 | 초원교실 | 김선희 |
| 12 | 회화 | 묵향나눔 | 황금선 |
| 13 | 어쿠스틱기타 | 성남모란노리터 | 안희식 |
| 14 | 밴드 | 버킷(BUCKET) | 정현성 |
| 15 | 색소폰 | 탑색소폰 클럽 | 남윤영 |
| 16 | 관악(오카) | 성남시민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 박정자 |
| 17 | 회화 | 한사랑(한글서예) | 강현주 |
| 18 | 공예 | 자기애 | 김강민 |
| 19 | 무용 | 탱고 꼬라손 | 윤종한 |
| 20 | 밴드 | 푸른바다 | 유승용 |

# 2019 참여 동아리

| | | | |
|---|---|---|---|
| 21 | 종합 | 헤움페페 | 정성희 |
| 22 | 공예 | 지그재그 | 정보라 |
| 23 | 공예 | 미소 | 전혜진 |
| 24 | 국악 | 야탑3동 보리 | 김은수 |
| 25 | 국악 | 모듬북 율 | 김은수 |
| 26 | 회화 | 드바세 | 이지나 |
| 27 | 밴드 | 시니어 어울림 경음악단 | 김영준 |

# VI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북 제작 후기

## 프로젝트 북을 마치며

# 프로젝트북을 마치며

## 편집후기

### 올 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생활문화동호회

더 많은 시민들, 더 많은 생활문화동호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출발한 성남 생활문화동호회를 지켜보면서 성취감보다는 가능성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성남의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단체로 우뚝 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